

# 전북대, 다문화 창의인재 양성한다

### 9월 2일~12월 16일까지 다문화학생 44명 대상 사범대생들 과학·수학 멘토링 교육 진행

대학생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직접 지도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단장 안병준)이 내달 2일부터 학기 중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한다.

지난 7월 여름방학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에 합숙하며 과학과 수학, 독서, 융합과학, 예술과 문화 등 체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사업단

은 내달부터 80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창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이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은 초등부 20명과 중등부 24명 등 모두 44명. 'WAO!(We Are the One!) Project'를 주제로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는 교육생들의 열정과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 12월 16일까지 이어진다.

학기 중 교육은 사범대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여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교육 멘토로부터 주차별로 배우는 내용을 밀착형으로 지도 받고, 생활문제나 친구관계 등 생활에 대한 고민도 상담할 수 있다. 사업단은 이런 멘토링을 예년보다 더욱 심화시켜 다문화 학생들이 지적 성장과 동시에 정서적 교류가

연중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병준 단장은 "사업단은 지난 5년간 많은 수료생들에게 과학과 수학에 관련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다문화 학생들의 학문적 호기심과 흥미를 키워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통일인문학, 담당' 31일 개최

도내 교원과 전문직들이 학교 밖 사람들의 통일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31일 오후 3시30분 8층 회의실에서 '2017 함께하는 통일인문학, 담당(擔當)'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는 평화통일 현장체험형 연수 대상자를 비롯해 희망교원, 전문직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연수에서는 정도상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상임이사과 김병용 전북작가회의 회장이 나와 대화형 콘서트 형식으로 2시간 동안 학교 밖 통일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도덕교과연구회에서 교과 속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교육과 현장교사의 고민 등을 이야기한 뒤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답소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일인문학 행사는 두 작가의 이야기 나눔 방식으로 교과서 밖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전하는 대화형 통일 콘서트"라며 "이를 통해 학교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역할의식을 높이고 교육과정 속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교직원 안전교육 '3년 15시간'

올해부터 교직원들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9일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 연수관련 기관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안내했다.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은 3년마다 15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해은 기자

# 퇴임하는 교장선생님이 장학금 기탁

### 전북과학고 흥진석 교장, 학교 발전기금 1000만원 출연

전북과학고등학교에서는 흥진석 교장 퇴임식이 최근 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40년 3개월 동안 전북도 교육발전과 인재 육성에 헌신해 왔던 흥 교장은 정년퇴임을 맞이해서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흥 교장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남원 금지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전북교육청 장학사, 순례교 교장을 비롯해 도교육청 장학사와 장학관, 교육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이고 학생 인권, 교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퇴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다.

흥 교장은 지난 2014년 9월에 교육국장의 임무를 마치고 전북과학고 교장으로 부임해서 3년을 근무



전북과학고등학교 흥진석 교장이 정년퇴임을 맞이해서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하다 이번에 정년을 맞게 되었는데 이미 7년을 평균사로 근무한 경력 이 있어 과학고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흥진석 교장은 전라북도 교육계에서 선후배 교사로부터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아 왔다. 흥 교

장은 퇴임을 하면서 비록 교단은 떠나지만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학교가 교사와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 공동체가 되었으면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해은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 월드비전 전북본부와 조식지원 협약 체결

전주교육지원청은 28일 오전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와 조식지원, 위기아동지원, 교육복지, 나눔 실천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일환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교 지원체제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식지원을 희망하는 초·중학교 3개교(전주동신초, 전주기린중, 전주중)에 1교당 10명 내외로 우선 지원하고 향후 많은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침머표' 조식지원 사업은 아동결식 감소에 기여하고 심리정서의 안정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돕고 위기아동

을 발굴하여 향후 주거, 의료, 기초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순 교육장은 월드비전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복지사업학교의 어려운 학생이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 주신 월드비전과 참여 학교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정해은 기자



## 전주시, 공유재산 꼼꼼하게 관리한다

### 전담 조사반, 실태조사 중

전주시가 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관리하고 나섰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시유재산 2만8,577필지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재산정보 자료를 보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시는 현재까지 1만3,802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시유지

무단점유자 8명, 18필지를 적발해 변상금 4,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목적 외 사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계도 및 행정조치를 통해 대부분 활용도를 높이고, 시유재산의 훼손에 따른 가치저하를 방지해 왔다.

특히 조사결과 유류 토지 및 용도폐지돼 대이상 공용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은 도로점면과 활용도 등 특성조사 후 매각대상 재산을 발굴해 토지 분할 및 정확한 측량 등 과정을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올해 매각이 완료된 재산은 토지 48필지, 22억여원에 이른다.

/안재용 기자

## 전주시, 재정건전성 '양호' 재정공시사항 공시

전주시의 살림살이가 자체수입은 늘고 부채는 줄어드는 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주시는 시민에게 2016회계연도의 재정 운영 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최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정공시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이번 재정공시에서는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재정 여건 등 재정 전반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또, 전국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 공시사항 50개 항목, 전주시만의 주요 사업 및 안전관련 사업 등 17건의 추진상황도 특수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시결과 전주시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전년대비 1,128억원이 증가한 1조 8,662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408억원이 증가한 6,69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채무액은 전년대비 145억이 줄어든 1,642억원으로 분석돼 세입은 늘고 부채는 줄어드는 건전한 재정 상황을 나타냈다.

재정지립도의 경우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최종예산기준 지난해 33.04%보다 다소 상승한 35.76%이며, 재정자립도는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복지에선 증가로 국·도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56.31%에서 55.70%로 감소했다.

/안재용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25일 5월,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